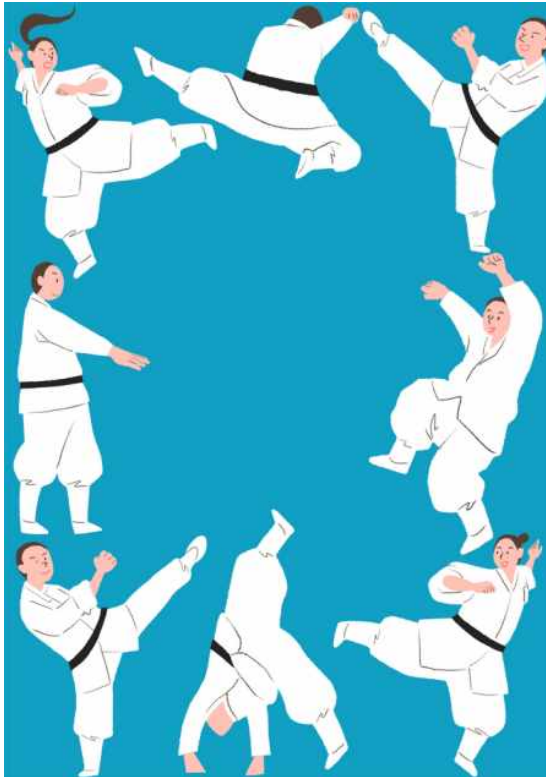


## 태권도와 택견

지금의 태권도가 한국의 대표 무예가 되기까지 살펴볼까요?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 무예인 태권도는 생각보다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조상들은 상대방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한 것으로 무예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1,000년 전 삼국 시대 신라의 청년들은 품위를 잃지 않는 수련을 하기 위해 무예를 배웠다고 합니다.



맨손 무술은 한국인의 배려 정신을 중심으로 조선 시대에 등장한 택견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인의 문화 정신이 깃든 택견은 여러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서민들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정신을 지키고 이어와 세계 무예 중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택견의 정신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방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싸우는 기술이지만 존중과 배려가 녹아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세시풍속과 연결되어 명절에는 마을 사람들끼리 판을 벌여 지역 젊은이들이 겨루기를 하기도 하며 삶에 친숙했지만 일본 식민지 시절을 거치면서 전통 무예가 금지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태권도는 한국인만의 무예를 잇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고유의 전통 무예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을 겪은 후에 ‘태권도’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지금은 국가 공식 스포츠이자 현대 무예의 상징인 태권도와 한국 전통 가치를 간직하는 택견이 함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단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과 집중력 등 정신적인 수양을 강조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